

“대국민 선전포고...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진원지였던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각각 SNS 등을 통해 남다른 반응과 각오를 보였다.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밤이었다. 44년 전 군홧발로 시민을 짓밟던 악몽이 되살아났다”며 “윤 대통령과 그를 호위하는 일군의 무리가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들을 자리에서 파면해야 마땅하다”며 “내란죄로 단죄해야 한다.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각오를 다

졌다.

박군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헌법상 근거 없는 계엄령으로 국회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 진입 등의 폭동을 일으켰으니 내란범죄(형법 87조)가 성립한다”며 “한겨울 밤의 꿈으로 끝났지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헌정 유린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내우외환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찰(국가수사본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도 “국회가 기민하게 움직여 ‘윤석열 친위쿠

데타’를 막았다”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집결함으로써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간발의 차로 저지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제부터 윤석열 탄핵이다. 탄핵소추안을 곧 발의한다. 민주당의 모든 선출직은 물론 시민들이 모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역시 “6시간의 비상계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국적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윤석열 하나 때문에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정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한 직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계엄에 국민의 군대와 민주 경찰이 부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SNS에 6건의 글을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발 빠르게 국회 내부의 움직임을 전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한마디로 미쳤다”며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비상계엄령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

했다.

조계원 의원(여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윤석열 정권은 당장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진짜 반국가세력은 바로 윤석열이며 그를 따르는 정치검찰과 총암과 군부 세력들이다. 윤석열의 반국가적 폭정에 동참한 세력들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진수기자

“학생 피해 없게 학사 운영 만전”

이정선·김대중 교육감, 일선 학교에 정상 등교 등 당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각급 학교의 정상 등교와 흔들림 없는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광주교육은 흔들림 없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은 국민이 용서치 않는다”며 “44년 전 비상계엄, 80년 5월의 아픔을 기억하는 광주는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을 지속해 광주정신을 전국은 물론, 세계에 까지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광주의 정의로운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광주교육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광주정신을 내면화한 ‘자랑스러운 광주학생’으로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도 이날 긴급 실·국장 회의와 간부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각급 학교의 등교와 학사 일정 및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일선 학교에 당부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많이

놀랐을 것”이라며 “이미 상황이 종료된 만큼 예정된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흔들림없이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이럴 때 일수록 교직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교육활동에 임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사 운영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기기자

역대 주요 비상계엄 선포 사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선포일	사건
이승만 1948년 10월 25일	여수·순천사건
이승만 1948년 11월 17일	4.3사건
이승만 1950년 7월 8일	6.25전쟁
이승만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이승만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박정희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박정희 1964년 6월 3일	6.3항쟁
박정희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박정희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
최규하 1979년 10월 26일	10.26사건
45년간	*신군부, 1980년 5월 17일 계엄 확대 1981년 1월 24일 해제
윤석열 2024년 12월 3일	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 강제 예산안 강행 저지

연말뉴스



윤석열 사퇴 촉구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 참석자들이 헌정유린·내란수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무장계엄군 280여명 경내진입...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김민기 사무총장 “의원 신변 보호 위해 국방부 직원·경찰 출입 금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약 280여 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 행위와 물리적 피해·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며 “국회의원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20여분이 지난 3일 오후 10시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곽 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방부는 3일 오후 1시48분부터 4일 오전 1시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

여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다”며 “이와 별도로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무장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 불발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 분청 진입 장면이 담긴 5초 분량의 국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계엄군이 탄 헬기가 국회 내에 연

이어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선포로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겠다”며 “배상 문제 등 법적으로 허용한 모든 범위를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김 사무총장은 “국회를 경비하는 계 국회경비대 임무임에도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수기자

건강과 행복! 우리 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모닝서울안과
GOOD MORNING SEOUL EYE CENTER

도안/백내장
라식/라섹
안검하수/쌍꺼풀
눈물길수술

2층 수술센터 / 3층 외래진료센터
- 안구건조증 클리닉 운영

광주 서구 무진대로 965
태영내과21빌딩·메디칼센터 2, 3층
☎ 062.430.2020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에덴병원

진료내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전화 : 062-260-3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 (두암동)

www.ct119.co.kr

믿음을 주는 참 좋은 병원
광주시티병원
시티재활의학과요양병원

광주시티병원 062.460-7000
응급실 062.460-7119

2023.01.01 - 2025.12.31
관절전문병원
SPECIALTY HOSPITAL OF JOINT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